

## 제주도 영등굿의 유래

- 연등회에서 영등굿으로의 변천 -

한 금 순 \*

• 목 차 •

- I. 서론
- II. 고려시대 연등회와 제주도 영등굿의 상관성
  - 1. 고려시대 연등회의 성격
  - 2. 제주도 영등굿의 의미
- III. 제주도 연등절의 시대적 변천
  - 1. 기록상의 제주도 연등절
  - 2. 제주도 연등절의 시대적 변천
- IV. 절 오백 당 오백의 공존
  - 1. 역사 속의 제주도 불교
  - 2. 영등굿 속의 불교적 요소
- V. 결론

---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제주도에서는 음력 2월에 새봄을 맞는 세시풍속으로 한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이 행해진다. 영등굿의 서사 속에는 영등대왕과 관음보살, 지장아기씨의 불공, 미륵에게 고해 올리는 영등송별대제, 무당의 바라춤 등의 불교적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 필자는 이 점을 유의하게 되면서 제주도 영등굿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를 찾기 시작하였고 제주도 관련 고문헌을 통해 추적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주도 영등굿은 고려시대 국가의례였던 연등회에서 유래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다.

국가의례로 온 나라 안에서 화려하고 풍성하게 시행되던 고려 연등회는 조선 건국으로 제일 먼저 철폐되어야 할 행사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고려 건국 이후 고려 시대 내내 시행되었던 연등회는 이미 민간의 세시풍속으로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거에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조선 시대에는 점차 그 성격이 변모되면서 고려시대와는 다른 형태로 그 모습을 이어갔다. 제주도의 영등굿은 바로 고려의 연등회에서 유래하여 제주도의 지리적 생활환경에 맞게 그 성격이 변화된 채 오늘에 이어져왔다.

조선 시대에 제주를 방문한 유학자들의 눈에 비춰진 제주의 풍속은 한결같이 미개하고 음사를 숭상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조선 유학자들이 제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고려를 방문하였던 중국인 서공<sup>1)</sup>이 고려를 바라보았던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 서공은 고려를 ‘음사가 성행하고 병이 나도 약을 쓰지 않는다.’고 표현하였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제주의 풍속을 ‘음사를 숭상’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1) 서공: 송나라 문신, 1123년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사실을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1124)으로 엮었다.

서공이 표현한 고려와 조선의 유학자들이 표현한 제주가 아주 흡사한 양상이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록상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주의 풍속이 아직도 미개한 시기에 있음을 말한다고 보아 당시의 제주풍속이 곧 고려 시대 풍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는 문화전파의 속도 내지는 유교적 사회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송나라와 고려의 차이처럼 조선과 제주도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간에 조선 유학자들의 눈에 비친 조선 시대 제주도의 풍속은 고려 시대 풍속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도의 연등하는 풍습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최부의 「탐라시 삼십오절(耽羅詩三十五絶)」에서는 15세기 후반 사찰에서 연등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난다. 이는 16세기로 들어서면서 불교적 특징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고려 연등회의 대표적 특징만 상징적으로 남아 연등절 풍습으로 변모되어 간다. 17세기 초 풍어를 기원하는 제주도 특징의 세시풍속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여 17세기 중반 이후 오늘날의 영등굿의 형태를 갖추면서 오늘에 전해지고 있음을 살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글은 굿 자체의 역사적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 제주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글이 굿의 역사성이라는 점과 비교되어 다시 연구되어 진다면 제주도 영등굿의 역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한층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글은 우선 고려시대 국가 의례인 연등회의 특징을 살피고 이어서 제주도 영등굿의 의미를 간략히 살피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 기록에 남아있는 제주도 연등절의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그러면 연등회와 연등절 그리고 영등굿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제주도 영등굿은 고려의 연등회의 풍속이 변모되어 형성된 것임을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다.

## II. 고려시대 연등회와 제주도 영등굿의 상관성

### 1. 고려시대 연등회의 성격<sup>2)</sup>

우선 고려 조 내내 국가의례로 거행되었던 연등회의 성격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그리하면 역불의 시대인 조선시대에 제주도 연등절이 고려 연등회의 불교적 요소가 제한된 채 민간에서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지만 풍농을 기원한다는 원래 연등회의 성격을 이어받은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연등이라 함은 등을 달아 불을 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의식을 말한다. 불교에서 등불은 지혜를 의미하여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 중의 하나로 여긴다. 고려의 연등회는 고대로부터 있어온 전통적인 제천기농제(祭天祈農祭)의 성격을 포섭하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례로 거행되었다. 태조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통해 국왕의 권위를 장엄하고 국민을 결속시켜 고려인으로서의 일체감을 고양시키는 기회로 삼았을 뿐 아니라 훈요십조<sup>3)</sup>로 강조해 놓기도 하였다.

고려의 연등회는 왕실 주관으로만 열렸을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거행되었다.<sup>4)</sup> 임시 관청인 연등도감(燃燈都監)을 설치하여 연등

2) 연등회에 대한 연구는 안지원의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출판부, 2005)에 자세하게 연구되어 있어 이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이외에 이은봉, 「고려시대 불교와 토착신앙의 접촉관계 -연등회 팔관회의 종교의례 기능을 중심으로-」 『종교연구』6권 (한국종교학회, 1990.) ; 한기문, 「고려시기 정기 불교 의례의 성립과 성격」, 『민족문화논총』제27집 (영남대학교, 2003.)도 참고하였다.

3) <훈요십조> 여섯째: 연등회와 팔관회 행사를 증감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유지할 것.

4) “復燃燈會 國俗 自王宮國都 以及鄉邑 以正月望 燃燈二夜 自成宗以來 廢而不舉 至是復之.” (『고려사』권 23 예 11 가례 잡의 상원연등회의 현종

회 때 사용되는 시설물들을 만들고 설치하는 것을 총감독하였을 정도로 연등회는 고려조 내내 주된 국가의례의 하나였다.

왕실 연등회의 중심행사는 국왕의 조진배알의식(祖眞拜謁儀式)으로 태조의 원찰인 봉은사로 왕이 행차하여 태조 영정이 있는 진전을 참배하는 의식이다. 연등회라는 불교의례에 조진배알이라는 국조 숭배의례가 결합된 이유는 왕권이 위협당하거나 거란 침입 등으로 국가 존립이 위기에 닥쳤을 때 국가적 결속을 뒷받침할 이데올로기로 '태조(太祖)신앙'이 대두된 결과이다. 야간의 관등(觀燈) 행사에는 문무백관들이 지위에 따라 각각 비단으로 아름답게 만든 언덕 모양의 장식대를 이곳저곳에 설치하고 군부대들도 거리를 따라 화려한 비단장식을 길게 연결하여 놓는다. 풍악과 함께 등석연(燈夕宴)이 베풀어지고 그림이 그려진 휘장과 병풍이 펼쳐지며, 수많은 등불로 대낮같이 밝다. 봉은사에서 태조의 영정을 참배하고 나서는 온 국민이 어우러지는 행사가 밤까지 이어진다. 국가가 관장하고 육성하는 궁정오락이었던 백희가무(百戲歌舞)도 공연되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국가 주도 행사는 연등회와 팔관회에 대한 일반 백성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왕실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백희가무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상원연등회가 유락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일반백성의 행사 참여를 촉발하여 상원연등회를 세시풍속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연등회는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한다는 불교적 의미와 함께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제천의식과 농경의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 해 농사의 개막 축제와 같은 행사였던 중국의 정월 15일 상원연등회를 본 따 시행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절기에 맞추어 2월 15일 연등회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는 정월보다는 2월이 되어야 농사가 가능한 기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지백의 “연등·팔관 등은 우리

원년 윤 2월; 『고려사절요』권3 현종 원년 윤2월).

고유의 풍속이므로 이를 통해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여 위기를 돌파 하자.”고 한 상소는 연등회가 고대로부터 있어온 풍속으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국민적 결속을 위해 연등회를 시행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원 간섭기에 국가의 자주성이 상실되면서 상원연등회의 위상도 위축되고 연등회의 성격도 변질되었다. 고려말 권문세가 발호하고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게다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자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복 행위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다. 사회통합 차원으로 시작되었던 연등회는 점차 개인의 기복을 위한 연등회로 변모되어 갔다.

연등회는 고려 말까지 지속된 고려의 국가의례 가운데 팔관회와 더불어 가장 고려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조선이 건국되자 연등회는 고려문화의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인 철폐대상이 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1392년) 도평의사사에 의해 연등회의 혁파가 강력히 주청되었다.<sup>5)</sup> 상원연등회가 국가의 공식행사에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에서 상원에 연등하는 풍속이 계속되자 태종 15년(1415년)에는 상원일 연등마저 공식적으로 금지<sup>6)</sup>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상원에 연등하는 풍속이 계속되었다. 불교적으로 공덕을 쌓는 의례행위라는 의미와 함께 봄철 기곡제의 성격을 가진 연등회는 절기 풍속으로 바뀌어 민간에서 계속 전승되었다. 조선시기 초파일 연등행사와 2월 15일 수륙제<sup>7)</sup>, 유교의례인 입춘절 절기행사에서 그 역사적 계기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제주도과 영

5) “都堂請罷八關燃燈.”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8월 갑인).

6) “罷上元日燃燈.” (『태종실록』 권 27 태종 15년 정월 정사).

7) 조선시대에는 역불정책의 일환으로 수륙제의 형식을 규제하기도 했으나 폐지하지는 않았다. 태종의 상(喪)을 올릴 때부터 규모가 한정되었지만, 세종이 위독할 때 구병(求病)을 위한 수륙제가 올려진 것으로 보아 계속했던 것 같다.(다음 백과사전).

남 지방의 영등신 풍속이 연등에서 유래한 사례라 보고 있다.

## 2. 제주도 영등굿의 의미<sup>8)</sup>

제주도에서는 음력 2월에 곳곳에서 '영등굿'이 행해지고, 사찰에서는 영등굿을 포섭한 제주도적인 의례 양상으로 '용왕재'가 열린다. 영등굿은 새봄을 맞으며 실시하는 풍농굿이며 풍어굿으로 땅과 바다에 파종의례를 하여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한편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행복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영등신은 외부로부터 제주도에 와서 밭(세경 너븐드르)과 바다(요왕)에 씨를 뿌리고 가는 바람신이며 농경과 어업의 신으로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대왕, 영등호장, 영등우장, 영등별감, 영등좌수 등 모두 일곱 신위(神位)이다. 음력 2월 영등달이 들면, 이 신들은 강남천자국에서 제주섬에 산 구경 물 구경을 하러 오는데, 맨 먼저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라는 포구로 들어온다고 한다. 그 다음 한라산에 올라가 오백장군에게 문안을 드리고, '어승생 단골머리'로 '소렴당'으로 '산방굴'을 경유하여 '교래리'까지 돌면서 복숭아꽃 동백꽃 구경을 하고 다니며, 세경 너른 땅에는 열두시만국[新萬穀] 씨를 뿌려주고, 갯가에는 소라, 전복, 미역 등의 씨를 뿌려준다. 영등신은 풍농과 풍어의 신으로 12가지 곡식과 해초의 씨를 뿌려주고 2월 보름날 우도를 거쳐 제주 섬을 떠난다.

또는 한수리의 고깃배가 풍랑을 만나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나라로 불려가고 있었는데 이 어부들을 살려주려 하는 영등대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영등대왕은 어부들에게 관음보살을 외치며 가면 고향으로 무사히 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어부들은 관음보살을 부르며 고향으로 오게 되었는데 육지가 나타나자 안심이 되어 더 이상

8)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황금알, 2005)을 참조하였다.

관음보살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풍랑이 일어 배는 외눈박이 나라로 불려 가는데 다시 영등대왕의 도움으로 관음보살 부르기를 명심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바다를 근거지로 하여 사는 섬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상사라 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도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뱃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경우가 이중의 『남사일록』에 나타나 있다.

낮 12시에 대소화탈을 지나는데 물결이 높아지고 배가 흔들거렸다.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멀미를 앓아 정신없이 쓰러지는데 나와 강비(姜裨), 강진통인(康津通引) 황우현(黃友賢)이 겨우 면하였다. 뱃사람들은 합장하고 열을 지어서서 “관세음보살” 소리를 입에서 그치지 않아 그 위험함을 알 수 있었다. 저물어 갈 때 추자도를 지나갔다.<sup>9)</sup>

설화는 근거 없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삶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사건의 요약이며 상징이 농축된 것이다. 관음보살을 불러 외눈박이나라로부터 벗어나려는 바닷사람들의 이야기는 실생활에서 종종 마주할 수 있었던 제주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강남천자국의 영등신은 2월 1일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어부와 해녀들에게 풍요를 주고 2월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2월 1일 환영제 때는 배의 주인이나 신앙심이 깊은 이들만 모여서 간소하게 굿을 하고, 송별제는 어업관계자와 해녀, 그 밖의 신앙민들이 모여 하루 종일 큰굿으로 치른다.

영등굿 중 제주칠머리당굿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대표적인 영등굿이다. 칠머리당굿은 일반굿인 영등굿과 잠녀굿의 기본인 요왕맞이, 어부들의 풍어굿인 영감놀이, 마을 본향당굿 등의 복합

9) 이중, 『남사일록』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1), 204쪽.



적인 구성으로 되어있다. 사라봉의 칠머리당에서는 2월 14일에 영등 송별제인 칠머리당굿을 하고 15일에 우도에서 다시 송별제를 받은 뒤 영등신은 본국인 강남천자국으로 돌아간다.

문무병이 연구한 칠머리당굿에 대한 자료인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을 바탕으로 해서 칠머리당굿의 순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초감제

청신(請神)하는 단계로 신들이 굿자리에 내려오도록 청하는 순서이다.

#### (가) 초감제

- (1) 삼석올림 : 삼석연물(설쇄, 북, 징)로 굿의 시작을 알림.
- (2) 청신삼배(請神三拜) 향촉권상 : 심방이 절을 하고 향불을 올려 신들에게 굿의 시작을 알림.
- (3) 궤문열림: 당신이 머무는 궤문을 여는 단계
- (4) 베포도엽 : 시간과 공간의 구분, 천지개벽 등의 발생을 노래함.
- (5) 날과 국 섬김 : 언제 어디서 굿을 한다고 설명하는 절차.
- (6) 열명 : 굿에 참석한 사람들의 출석부
- (7) 연유답음 : 굿을 하게된 연유를 고함.
- (8) 군문열림 : 하늘의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늘 옥황신궁의 문을 여는 과정.
- (9) 분부사뵐 : 천문점을 쳐서 신의 뜻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
- (10) 새드림 : 정화수를 뿌려 제장을 정화시킴.

#### (나) 신청제

- (1) 신청제 : 군문이 열려 하강한 신들을 마중나가 안내하여 모시고 오는 과정.

- (2) 정대우 : 청해 들인 신들을 지위와 계급에 맞게 배정하는 앓히는 과정.

## 2. 본향뵈

본향당신을 청해 들어 축원하는 과정. 칠머리당의 본향당신은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이다.

### (가) 본향뵈

- (1) 본향뵈 : 신청례를 시작하여 본향당신이 제장에 들어오는 과정.
- (2) 삼헌관 절 시킴 : 본향당신이 좌정하면 굿을 하는 대표 3명을 삼헌관으로 하여 제단에 꿇어앓히고 배례를 시킴.
- (3) 자손들 소지 올림 : 굿에 참석한 자손들이 제단에 나와 소지를 태워 올리고 배례.
- (4) 정대우 : 본향당신과 본향군졸까지 신들의 자리를 배정하고 위계에 따라 제장에 앓히는 순서.
- (5) 도산받아 분부사뵈 : 마을의 한해 운수를 점치고 신의 뜻을 전달함.
- (6) 석살림 : 굿 한 석이 끝날 때 가락과 춤으로 신을 즐겁게하고 기원하는 굿.

### (나) 공연

- (1) 추물공연 : 신에게 제물을 접대하는 과정.
- (2) 금벼리잔 : 신들에게 잔을 권함.
- (3) 나까시리 놀림 : 신에게 바치는 시루떡을 놀리는 춤.
- (4) 지장본풀이 : 일찍 부모를 여윈 지장아기씨가 절에 가서 정성스레 불공을 드려 그 공력으로 새의 몸으로 환생한다는 이야기로 기구한 운명을 던고 고난의 삶을 헤쳐나가는 이야기.

## 3. 요왕 맞이

바다의 용왕신과 바람의신인 영등신을 제장에 맞아들여 기원하는 순서.

(가) 초감제

(나) 방광침(기원) : 징을 치며 신에게 기원하여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

(다) 추물공연(공연) : 제물과 지전을 감상하고 잡수시고 가라고 모신 신들을 차례로 부르며 노래.

(라) 요왕질침 : 용왕과 영등신이 가시는 길을 치움.

(1) 사신요왕 수정국 길 돌아봄

(2) 언월도로 베기

(3) 작데기로 치우기

(4) 은따비로 파기

(5) 발로 고르기

(6) 물메로 깨기

(7) 삼태기로 치우기

(8) 미레깃대로 고르기

(9) 이슬다리 놓기

(10) 마른다리 놓기

(11) 나비다리 놓기

(12) 요왕다리 놓기

(13) 차사다리 놓기

(14) 올구멍 메우기, 시루다리 놓기, 흥마음다리 놓기

(마) 요왕문 열림

#### 4. 씨드림

(1) 씨드림 : 씨를 뿌린다는 의미로 해초의 씨를 바다에 많이 번식하게 해준다는 뜻.

(2) 씨점 : 씨를 뿌려 흉풍을 점침.

5. 마을 도액 막음

(1) 마을 도액 막음 : 마을의 액막이 곳으로 사람 목숨대신 닭을 잡아가라고 수탉을 바깥으로 내던짐.

(2) 각산받음 : 초감제에서 열명한 자손들의 운수를 바꾸는 과정.

6. 영감놀이

(1) 영감 청함

(2) 서우젯 소리 : 다 같이 춤을 춤

(3) 배방선과 지들임 : 제물을 실은 짚 배를 바닷가로 들고 나가 영감신과 제주 명산물들을 실어 멀리 띄어 보낸다. 제물을 백지에 싸서 용왕신과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대접한다.

7. 도진

모든 신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순서.

영등굿은 신들을 곳자리로 불러들이는 초감제, 칠머리당의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을 불러들여 축원하는 본향뚝, 용왕신과 영등신을 제장에 맞아들여 기원하는 요왕맞이, 바다에 씨를 뿌리는 씨드림, 마을전체의 액을 막는 마을 도액막음, 영등신을 본국으로 보내는 영감놀이,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도진으로 끝이 난다. 영등굿은 새봄이 시작되는 음력 2월에 외래신이며 바람신인 영등신이 제주도에 풍농과 풍어를 가져다주는 의례를 행함으로서 한 해 동안의 집안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으로 행해져왔다.

제주도 영등굿은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고려의 연등회의 특징과

일치하고 있다. 고려의 연등회는 고대로부터 있어온 정월 상원의 제천기농제(祭天祈農祭)의 성격에 불교적 특징인 연등을 접목한 축제였다. 제주도 영등굿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이어받아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였다.

### Ⅲ. 제주도 연등절의 시대적 변천

#### 1. 기록상의 제주도 연등절

고려의 국가의례였던 연등회의 풍속은 조선조에 이르러 점차 민간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제주도의 경우는 불교적 특징과 함께 제주도만의 지역적 특징을 포함한 양상으로 변모되면서 제주도의 독특한 풍속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러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온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제주도 연등절에 관한 조선시대의 기록들은, 최부의 「탐라시 삼십오절」, 『신증동국여지승람』, 김상헌의 『남사록』, 이원진의 『탐라지』, 이증의 『남사일록』, 이형상의 『남환박물』,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등이 있다. 이들 기록들은 15세기 후반, 16세기 중반, 17세기 초반·중반·후반, 18세기 초반 그리고 19세기 중반의 기록 들이다. 이외에도 20세기에 들어 만들어진 기록으로 김석익의 『심재집』(1937년), 남만리의 『탐라지』(1902년 경), 담수계의 『증보탐라지』(1953) 등이 더 있으나 앞에 제시한 기록을 근거로 인용한 것들이어서 이 글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 1) 최부, 「탐라시 삼십오절(耽羅詩三十五絶)」(1487년)

제주도 연등절에 관한 기록으로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은 1487년 최부의 「탐라시 삼십오절」이다. 최부는 1487년(성종 18년)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왔다. 추쇄경차관이란 불법자들을 찾아내 문책하는 직책으로 육지에서 죄를 짓고 제주도로 도망 온 범법자들을 찾아내 치죄하기 위해 파견된 직분이다. 최부는 다음해 1488년 부친 상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가 중국에 표류하여 『표해록』을 남긴 인물이다.

「탐라시 삼십오절」은 1653년의 이원진의 『탐라록』에 삽입되어 전해지며, 또 1681년에는 이증도 『남사일록』에 옮겨 놓고 있다. 「탐라시 삼십오절」은 최부가 제주도 활동 중인 1487년에 쓴 글이다. 그래서 1480년대를 전후한 성종대의 우리나라 연등 풍습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하겠다.

고려의 연등회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성격이 변모된다. 우선 고려의 맥을 끊는다는 의미로 조선 건국 직후에 연등회의 혁파가 거론되며, 1415년(태종 15년)에는 상원연등회가 국가의 공식행사에서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에서 상원에 연등하는 풍속이 계속되자 상원일 연등마저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등으로 조선시대에 와서 국가는 연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최부가 활동하던 성종 때에는 아직 사월초파일 연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성종실록』 중 1475년(성종 6년)의 기사이다.

임금이 한성부에 전교하기를,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집집마다의 연등(燃燈) 놀이에 화재가 날까 두렵다. 금지하도록 하라.”하였다. 우리나라의 풍속에 이 날을 석가 탄신일이라 하여 집집마다 등을 켜 놓는다. 장대를 많이 세우고 수십 개의 등을 연달아 달며, 등으로 새나 짐승, 물고기나 용의 형상을 만들어 대단히 호화롭게 하기에 힘썼으므로,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sup>10)</sup>

이 기사에 의하면 석가탄신일에 집집마다 연등하고 있었으며, 고려 시대의 연등회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장대를 많이 세우고 수십 개의 연등을 연달아 달고 있으며 대단히 호화로워 구경하는 사람이 많았었다. 공식적으로 국가의례인 상원연등회는 금하였으나 석가탄신일 연등이 집집마다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풍습이라 묘사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바람이 불어 집집마다의 연등으로 화재가 날까 두렵다고 하였다.

또한 1478년(성종 9년)에도 사월 초파일에 연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남녀가 모여서 술을 마시니 이를 금하게 해달라는 기사가 있다.

강거효는 말하기를, “4월 8일에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연등(燃燈)을 일삼으니,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남녀가 모여서 술을 마시며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며 희롱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실로 이는 폐풍(弊風)입니다. 빌건대 엄히 금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sup>11)</sup>

조선이 개국하고 100년이 아직 안 된 시기인 1478년이었으니 고려의 연등 풍속이 그대로 남아 전해지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조선은 고려의 국가의례였던 상원연등회를 금지시켰으나 이미 세시 풍속으로 뿌리 내려 있는 연등의 풍속은 이 시기까지도 남아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물론 점차 그 성격이 변모되어 갈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러한 성종 대의 시대적 상황과 일치하는 제주도의 연등에 관한 시가 바로 최부의 「탐라시 삼십오절」이다. 1478년 성종대의 초파일 연등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는 모습과

10) 『성종실록』 권 54 성종 6년 4월 8일 병술.

11)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5일 병신.

10년 뒤인 1487년 최부가 본 제주의 연등 풍속의 왁자지껄함은 그 맥락이 닿아있다. 연등에 관련된 부분은 27수이다.

嫌將歲月虛拋擲 세월은 헛되이 버려지기 싫어  
照里鞦韆傳自昔 줄다리기와 그네뛰기는 예부터 전해오고  
僧刹了無香火時 절에는 향화가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고  
駢闐簫鼓燃燈夕 연등 저녁이면 통소와 북 소리도 패를 지어 가득하네.<sup>12)</sup>

최부는 연등날 밤 사찰에서 행해지는 제주도의 연등 풍속을 묘사하였다. 줄다리기와 그네뛰기가 예로부터 전해져 지금도 시행되는 모습에서 세월은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듯이, 연등회의 풍속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려 한다. 연등날 저녁이면 절을 찾는 사람들로 향불이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고 통소와 북을 동원하여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하였다. 절에 모여 향을 공양하고 악기를 동원하여 왁자지껄한 연등날 저녁을 즐기는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백희가무로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였던 고려시기 연등회의 풍속이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상원연등회가 금지된 시기였으나 민간에서는 고려시기의 연등 풍속의 특징을 잃지 않고 북과 통소로 흥을 돋우며 사찰에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줄다리기와 그네뛰기는 풍작을 기원하는 놀이였다. 그네뛰기는 봄이 되면 여자들이 생산의 의미나 풍작의 주술적 의미를 담고 하던 놀이였다. 고려시대에는 궁중과 상류사회에서 성행하였고 백희가무에서 그네뛰기를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양반층에서 체통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멀리하였으나 민간에서는 평상시에도 즐겼다. 줄다리기는

12) 임병건 해석.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의식이다. 제주도 연등 풍습을 표현한 최부의 시각에서도 연등회가 제천기농(祭天祈農)의 성격을 이어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최부의 시 「탐라시 삼십오절(耽羅詩三十五絶)」에서 제주도에 1487년까지도 연등 시기가 되면 고려의 연등회와 유사하게 잔치 같은 연등 풍속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을 수정한 1530년(중종 25년)의 책으로 조선전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후 조선시대 기록들에서 제주도의 연등절 풍속에 관한 기록들은 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근간으로 하여 조금씩 덧붙여지거나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원진의 『탐라지』, 이증의 『남사일록』, 이형상의 『남환박물』,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등에서 모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인용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도 연등 풍속은 2월 초하루에서 2월 보름까지 신을 즐겁게 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2월 초하루 귀덕 김녕 등지에서는 12개의 장대를 세우고 신을 맞이해 제사를 지내고 예월에서는 나무로 말머리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채색 비단으로 꾸며서 약마희(躍馬戲)를 하여 신을 즐겁게 하는 풍속이 2월 보름에 끝났는데 이를 연등이라 불렀다.<sup>13)</sup>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고려시기 연등회의 불교적 특징은 보이

13) “於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燃燈.”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풍속조).

지 않고 신을 즐겁게 하는 풍속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개의 장대를 세운다거나 채색비단으로 형상을 꾸민다거나 하는 제주도 연등의 특징은 고려 연등회의 '긴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비단으로 장식해 놓고 연등을 걸어 구경'하였던 풍속을 그대로 잇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연등을 할 때는 등을 걸기위한 장대인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등간 꼭대기에는 물들인 비단으로 기를 만들어 달아놓고 이 등간들을 줄로 매고 그 줄에 등을 달았다. 12개의 장대와 채색 비단은 바로 고려의 연등을 걸던 풍속의 상징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불교를 억압하는 시대를 맞아 사찰을 중심으로 부처님께 등을 공양해 올린다고 하는 불교적 특징을 빼고 나서 나뉠대로의 상징성을 지닌 양상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찰을 중심으로 하던 연등은 제주 나뉠의 독특한 세시풍속으로 특징을 잡아가고 있다 하겠다.

### 3) 김상헌, 『남사록』(1602년)

『남사록』은 1601년(선조 34년) 길운절의 제주반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 파견된 김상헌이 1602년 2월까지 6개월을 머무르며 제주의 풍토·물산·형승·민정·풍속·고적·공헌(貢獻)·성지·항구·군비 등의 주요한 건설물, 특히 진공(進貢)과 군역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역에 대해 상세히 저술한 책이다.

김상헌은 다음과 같은 연등절에 관한 시를 남기고 있다.

二月南園解籜龍	이월이 되어 남녘 땅에 죽순이 꺾질 벗으니
舟人停棹罷占風	배사공이 노 젓기를 멈추고 바람 점 보기 그만두네.
燃燈過節都無事	연등(燃燈) 절기를 지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니
燕社家家酒滿筒	잔치하는 집집마다 술이 통에 가득하네. <sup>14)</sup>

김상헌은 “탁라가(毛羅歌)에 더하여 삼가 점필재(佔畢齋)의 운을 잇는다.”고 부연하고 14수의 시를 지었는데 위의 시는 그중 아홉 번째 것이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점필재의 「탁라가」가 실려 있다. 점필재는 김종직이다. 김종직은 1465년(세조 11년) 2월 28일 직산의 성환역에서 제주의 약을 진상하는 제주사람 김극수에게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묻고 「탁라가」 14수를 남겼다. 이 시는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아주 상세히 적었기 때문에 명륜당에 걸어 놓고 민풍을 살피는 자에게 보탬이 되었다고 후에 심연원이 기록하기도 하였다.<sup>14)</sup>

김상헌은 『남사록』을 지으면서 제주에 관한 기록을 찾아 함께 써두었으며, 김종직이 「탁라가」를 쓴 양식을 좇아 자신도 제주의 풍속에 대해 14수의 시를 지었다. 「탁라가」에는 연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김상헌은 연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이는 김종직의 시대로부터 140여년이 지난 김상헌의 시대인 1602년에는 제주의 연등절 풍습이 독특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초에 이르러 제주의 연등절은 육지와 다른 제주만의 독특한 풍속이 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 최후의 「탐라시 삼십오절(耽羅詩三十五絶)」에 묘사된 북과 통소를 동원하는 사찰에서의 왁자지껄한 연등 분위기는 고려 연등회의 특징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김상헌이 표현한 17세기 초에는 연등 절기에 집집마다 주연을 베푸는 정도의 잔치로 그 성격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상헌은 ‘제주의 풍속에 이월을 연등절이라고 하여 절대로 배를 놓지 않고 술을 추렴하여 모여 마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김상헌은 1602년 정월 27일 아침 문계명 등을 불러 제주의 굳은 날씨에 대해 물었다. 문계명 등이 설명해준 제주 연등절의 유래를 다음과

14) 임병건 해석.

15) 김상헌, 『남사록』(박용후 역, 제주도교육연구원, 1976), 87~89쪽.

같이 기록해 두었다.

“제주 풍속은 2월을 연등절이라고 하는데 진실에 의하면, 당나라 상인의 배가 난파하여 표몰한 자의 사체(四體)가 분해되어 두골(頭骨)은 제주 동쪽 어등포에 들어가고 수족(手足)은 제주 서남쪽 고내 예월 명월 등의 포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정월 28일부터 마을에서 쌀을 거두고 2월 초 5일에 이르러 연등신을 제사합니다. 매년 정월 그믐 때 바람이 서해로 오면 타방 신이 왔다고 하여 모든 무당을 모아 들제(野祀)를 지내고 밤낮으로 촌가에 출입하며, 2월 상순이 되면 또 배모양을 만들고 돛대를 갖추어 포구에 띄우는데 이것을 신에게 보낸다고 하며 이때에 바람이 동북으로 오면 타방 신이 떠났다고 합니다. 2월 초일로부터 보름 뒷날까지는 절대로 배를 놓지 아니합니다. 오직 진상하는 배는 관가의 독촉하는 명령에 의해 속기(俗忌)에 구애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배는 때때로 부서지는 경우가 많고 이 지방 사람들은 반드시 이를 고집하면 허물이 되고 이 말이 간사한 망언에 해당하니 감히 벼슬아치들에게 들려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리(常理)로서 말할지라도 정월 2월은 바로 풍기(風氣)가 고르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사방으로 바람이 온종일 계속되어 그치지 않고, 불었다 그쳤다하여 삼동(三冬)에 비하면 비록 이것이 봄이 시작된 뒤라 하더라도 해중(海中)의 바람 날씨가 더욱 거칠어 무릇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달에는 가볍고 쉽게 배를 놓아서는 아니됩니다.”고 하였다.<sup>16)</sup>

김상헌은 제주도의 연등절에 대해 세간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였다. 제주도의 음력 2월은 세간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바람이 고르지 못한 시기라서 바다 날씨 또한 거친 시기인데, 제주 사람들은 연등절이 되면 연등신을 제사하면서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무당들이 제를 지내고 돛대를 갖춘 배모양을 만들어 신에게 보낸다고 한다. 세간에서는 이시기에 절대로

16) 김상헌, 『남사록』 (박용후 역, 제주도교육연구원, 1976), 165-166쪽,

배를 띄우지 않는데, 이는 음력 2월이 주로 날씨가 거칠어 바다에서 액을 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이나 당나라 상인의 배가 난파당하여 그 시체가 이 곳 저 곳으로 나뉘어 들어갔음을 표현함으로써 바다에서 겪는 죽음의 공포를 대신 설명하고 있다. 김상헌이 표현한 이 제주 연등절의 유래는 이후 이형상 등 다른 자료에 인용된다.

김상헌의 글을 보면 제주의 연등절은 제주의 세시풍속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연등회는 조선 초기까지도 사찰에 모여서 행하는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17세기에 들어서면 연등절은 불교적 특징이 사라지고 제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양상을 그대로 포섭하고 있다고 하겠다. 섬이라는 자연적 조건 속에서 바다를 작업의 터로 하는 제주사람들의 신앙은 바다와 바람에 대한 경외와 기원이 당연할 것이다. 바람을 타방신이라 하여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바람 많다는 제주도의 자연 조건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런 신앙양상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연등회는 고대의 제천의식과 풍농을 기원하는 특징에 불교적 연등의 공덕을 보태면서 이루어지던 것이었는데 이제 제주도의 연등절은 제주도 나름의 풍어에 대한 기원이라는 확실한 특징을 띠게 되면서 제주도 특유의 풍속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 4) 이원진 『탐라지』(1653년)

이원진이 연등에 대해 기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음사를 숭상한다. 풍속은 음사를 숭상하여 산과 숲, 내와 못, 높은 언덕이나 낮은 언덕, 물가와 평지, 나무와 돌 따위를 모두 신으로 섬겨 제사를 배운다.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남녀 무당이 주신을 모시는 기(神囿)를 함께 받들고, 역귀를 쫓는 행사(儺戲)를 벌이면서 징과 북을 앞세워서 마을을 나들면 마을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

어 제사한다.

또 2월 초하룻날 귀덕 김녕 등지에서는 나무장대(木竿) 열두 개를 세워 신을 맞아 제사지낸다. 에월 사람들은 때 모양을 말머리처럼 만들고 비단으로 곱게 꾸며서 악마회를 벌여 신을 즐겁게 하였다. 보름날이 되면 마쳤는데 그것을 연등(燃燈)이라고 하였다.

이달에는 배 타는 것을 금하였다. 또 봄 가을로 남녀가 광양당과 자귀당에 무리로 모여 술과 고기를 갖추어서 신에게 제사한다. 또 제주 땅에는 뱀 독사 지네가 많은데 만약 회색 뱀을 보면 자귀의 신이라 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sup>17)</sup>

이원진은 제주도의 풍습 중에 1월엔 나희(儼戲)<sup>18)</sup>를 벌이고 2월엔 연등을 지낸다고 표현하였다. 나희는 고려 초부터 궁중과 민간에서 잡귀를 쫓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했던 행사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이원진이 표현한 연등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일하다.

##### 5) 이증, 『남사일록』(1681년)

이증은 1679년(숙종 5년)에 제주안핵겸순무어사로 파견되어 제주도에 5개월여 체류하였다. 『남사일록』은 한양 출발인 1679년 10월 27일

17) 김찬흡 외 옮김, 『역주탐라지』(푸른역사, 2002), 24~25쪽.

18) 고려 초부터 궁중에서 행해졌던 귀신을 쫓는 의례를 나례라고 하였다. 나례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주문을 외면서 귀신을 쫓는 동작을 하는 행사로 일종의 가면희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나례는 점차 역귀를 쫓는 종교적 의식보다는 관중을 즐겁게 하는 구경거리인 백희가 무에 더 비중을 두게 되면서 나희로 변모되어 갔다. 궁중과 민간에서는 잡귀를 쫓아내고 새해의 복을 맞이하려는 의미로 설달 그림에 깨끗이 청소한 후 나례를 행하였다. 축귀의식이었던 나례는 광대나 무당들을 동원하는 놀이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왕의 행차나 신임 감사의 영접, 또는 칙사의 대접 등에 동원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연회적 성격을 띠며 지속되어 나례를 관장하는 임시관청으로 나례도감(儼禮都監), 상설기관으로 나례청(儼禮廳) 등을 두기도 하였다.(다음 문화원형 백과사전).

부터 시작하여 제주를 떠나기까지인 1680년 4월 4일까지의 일기이다. 제주의 군정(軍政)과 군기 점검, 군사 요충지에 대한 방수(防守) 업무, 삼읍 수령의 민정, 과거시험에 대한 지침, 한라산재 봉행, 효자·절부에 대한 표창 등을 비롯하여 제주 삼읍의 지리, 풍속, 공납과 물산, 봉수연대, 방어시설과 군역의 수 등 제주의 실상이 기록되어 있다. 이증도 연등절에 관한 시를 남겼다.

燃燈節屆立竿牢 연등절 이르니 장대 세워놓고  
 儼戲時廻奉燾高 나희 때 돌아오면 깃발 높이 받들고  
 壽城清秋多好事 장수하는 고장 맑은 가을은 좋은 일도 많아  
 鞭鞭照里捕鷄毛 그네뛰기 줄다리기 닭싸움 하네<sup>19)</sup>

이증도 점필재(佔畢齋)의 탁라가(毛羅歌)의 시운을 따라 쓰노라고 하였다. 앞에서 김상헌이 점필재의 「탁라가」 시운을 잇는다고 하였음을 살폈다. 아마도 「탁라가」는 조선시대에 있어 제주의 풍속에 관해 쓴 교과서 같은 역할의 글이었지 않았나 싶다.

이증은 제주의 풍속을 묘사하는 데는 이원진의 『탐라지』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증은 이원진이 표현하였던 나희 때의 깃발(神燾)과 연등절의 목간(木竿)을 소재로 하여 시를 남기고 있다. 봄에 연등절의 기원으로 역귀들을 물리치니 가을이면 좋은 일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전하고 있다. 그네뛰기와 줄다리기, 그리고 추석에 행하는 닭싸움 등 풍요로운 제주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연등절이 연등회처럼 풍농을 기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영등굿의 풍농기원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연등절은 17세기 중반 이후 세시풍속으로 정착하여 점차 오늘날의

19) 임병건 해석.

영등굿의 형태로 굳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 6) 이형상, 『남환박물』(1704년)

『남환박물』은 1702년 3월에서 1703년 6월까지 제주목사를 지냈던 이형상이 1704년 경상도 영천에서 쓴 제주도의 지지이다.

이형상은 제주도의 신앙양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원진의 『탐라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참조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음사를 숭상한다. 주기(州記)에 의하면 풍속에 음사를 숭상한다. 산의 숲이나 하천과 못, 구릉, 물가 언덕이나 하류 평지의 목석에 모두 신사(神祀)를 설치한다. 매년 정월 초하루에서 정월 보름까지 무당과 박수가 같이 신독(神蠶)을 받들어 나희(儺戲)를 한다. 쟁과 북을 치며 깃발과 창검을 앞세워 마을을 드나들면, 관원 이하 모두 다투어 의복과 재곡(財穀)을 내놓으며 이로써 제사지낸다.

또 2월 초하룻날 귀덕과 김녕 등지에서는 목간(木竿) 12개를 세워서 신을 맞이하고 제를 지낸다. 에월에 사는 이들은 마두(馬頭) 모양의 띠배를 만들어 비단으로 장식하고, 약마희(躍馬戲)를 하여 신을 즐겁게 하는데 다음날에 이르러야 파하게 된다. 이를 연등(燃燈)이라 한다. 이 달에는 배 타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이형상 자신이 당 첩폐에 앞장섰던 것과 연관되어 당에 관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광양당 차귀당에서 신에게 제사지내며, 또 김정희의 「제주풍토록」을 인용하여 귀신에 제사지내는 것을 숭상한다고 하였으며, 김상헌의 『남사록』을 인용하여 2월초에 바다에 절대로 배를 내보내지 않는 연등절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다.

또한 이형상은 제주도의 신앙양상에 대해 서술하고 이형상이 제주에 머무는 그 시점까지도 이러한 풍속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



다.

또 말하기를 이 풍속은 지금도 오히려 고쳐지지 않았다. 광양당 차귀당 등과 같은 음사에는 툽소와 북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 지방 사람들은 하늘과 같이 경외한다. 무릇 한 집안이 크고 작은 일도 반드시 먼저 이곳에서 기도한 연후에 감히 실행한다. 정초면 신을 영접하여 성으로 들어오는데 이를 신유(神遊; 신놀림)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다투어 의복을 내놓고 보시(布施)를 한다. 또 말하기를 마을 사람들은 늙어 병을 얻게 되어 오래 낫지 아니하고 위독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경건하게 정성으로 기도한다. 만약 병 치유가 불가하면 귀신에게 속히 죽음에 이르도록 소원하며 오래 고통스럽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같은 것을 모두 효성이라고 칭송한다. 이는 대개 야만의 풍속이 다 변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다.<sup>20)</sup>

마을 사람들은 의복을 내놓는 등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신을 영접하여 성으로 들어와 신놀림을 한다. 이는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행복을 기원하는 오늘날 영등굿의 특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연등질의 풍습은 18세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영등굿과 맥을 같이 하는 흐름으로 그 특징이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 7) 홍석모, 『동국세시기』(1849년) 외

홍석모의 『동국세시기』는 1849년에 만들어진 세시풍속에 관한 책이다. 정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세시풍속을 23항목으로 분류하여 월별로 기록해 놓았다. 특히 제주도의 풍습은 본토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기사가 실려 있다.

연등에 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20) 김봉옥 편역, 『속 탐라록』(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1994), 335~336쪽.

귀덕과 김녕 등지에서는 2월 초하루 12개의 장대를 세우고 신을 맞이해 제사를 지내고 애월에서는 2월 보름까지 나무로 말머리 모양을 만들어 채색 비단으로 꾸며서 말뛰기 놀이를 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를 연등이라 불렀다.<sup>21)</sup>

이 『동국세시기』의 기록은 앞에서 인용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를 그대로 보고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국세시기』 이후 20세기의 기록들은 앞의 기록들을 인용한 수준에 그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김석익의 『심재집』(1937년) 중 「해상일사(海上逸史)」의 연등절 조는 김상헌의 『남사록』을 인용하고 “영등신이 지나가는 곳 바닷가의 조개나 소라 등속은 모두 껍질이 빈 채로 남게 되는데, 이는 영등신이 까먹어 버렸기 때문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 남만의 『탐라지』(1902년 경), 담수계의 『증보탐라지』(1953) 등은 앞의 조선시대 기록들을 인용한 수준이다. 이상 조선시대 기록에서 제주도 연등절에 관한 기사들을 모아보았다.

## 2. 제주도 연등절의 시대적 변천

조선시대에 들어 연등회는 금지되었지만 15세기 후반까지도 제주도의 연등절은 고려의 연등회와 유사한 풍속이었던 것 같다. 앞에서 최부의 「탐라시 삼십오절」에서 살핀 것처럼 연등절에는 절에 향을 공양해 올릴 뿐 아니라 사찰을 중심으로 통소와 북 등을 패를 지어 가득히 벌여 놓아 왁자지껄하게 잔치를 하였다. 또한 예로부터 전해진 줄다리기와 그네뛰기도 하였는데, 이는 풍농을 기원하는 놀이이다. 연등절은 연등회의 기농(祈農)의식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

21) “濟州俗 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涯月居人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止 謂之燃燈.” (『東國歲時記』2월, 안지원의 책 117쪽에서 재인용).

한 특징은 고려의 연등회의 특징과 매우 흡사하다.

16세기로 들어서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본 것처럼 점차 고려시기 연등의 불교적 특징은 보이지 않고 신을 즐겁게 하는 풍속으로 변모되고 있다. 연등절 행사에 불교적 특징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대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불교는 우리나라 토착신앙을 포섭하며 한국화되었다. 사찰 안에 산신과 칠성신 등이 혼재되어 모셔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고려 연등회 때에도 도교적 의례가 함께 선행되기도 하였고 밀교적 방식으로 질병이나 재앙을 물리치려는 소재도량(消災道場)이 많이 베풀어지기도 하여 불교는 부처 이외의 여러 신들과 공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외형적으로 불교적인 행위는 금지되었지만 신앙 양상에 있어서 습합이 이루어지면서 부처 또한 여러 신들 중의 하나로 공존하는 모습으로 변모되어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표현인 12개의 장대를 세운다거나 채색비단으로 꾸민다거나 하는 행위는 고려 연등회의 긴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비단으로 장식해 놓고 연등을 걸어 구경하였던 풍속이 이어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등을 하기 위해서는 등을 걸기 위한 장대인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등간 꼭대기에 물들인 비단으로 기를 만들어 달아놓고 이 등간들을 줄로 매어 그 줄에 등을 달았다. 바로 고려의 연등을 걸던 이러한 풍속이 12개의 장대와 채색 비단으로 상징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등회에서 부처님께 등을 공양해 올린다는 불교적 특징을 빼고 연등회의 주요 행사였던 장대 세우기 등이 요약되고 상징화 된 채 남아 변모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사찰을 중심으로 하던 연등은 같은 절기에 신에게 제사하는 제주 나름의 독특한 세시풍속으로 특징을 잡아가고 있다.

17세기에 이르면 김상헌의 『남사록』의 표현처럼 연등회는 이제 연등하는 절기라는 의미의 연등절로 표현이 달라지며 제주의 연등절

풍습은 유학자들의 눈에 독특하게 비취질 만큼 제주만의 풍속이 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의 북과 통소를 동원하는 악자지결한 연등절 분위기가 17세기에는 주연을 베푸는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집집마다 주연을 베푸는 잔치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어 제주의 연등절은 제주의 세시풍속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 들어서면 연등절은 제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양상을 그대로 포섭하고 있다고 하겠다. 섬이라는 자연적 조건 속에서 바다를 작업의 터로 하는 제주사람들의 신앙은 바다와 바람에 대한 경외와 기원이 당연할 것이다. 바람을 타방신이라 하여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바람으로 인한 재해가 많은 제주도의 자연 조건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런 신앙 양상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고려의 연등회는 고대의 제천의식과 풍농을 기원하는 특징에 불교적 연등의 공덕을 보태면서 이루어지던 것이었는데 이제 제주도의 연등절은 제주도 나름의 풍어에 대한 기원이라는 확실한 특징을 띠게 되었다.

연등절은 17세기 중반 이후 세시풍속으로 정착하여 점차 오늘날의 영등굿의 형태로 굳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이원진과 이증은 앞 시대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주의 연등절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시기 제주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영등굿의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영등굿의 특징이 확고해진다. 고려의 연등회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의 보시에 의해 경비는 마련되었는데, 연등절 풍습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경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꾸준히 이어져 김상헌의 기록에서도 보이는데 이형상의 표현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의복을 내놓는 등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신을 영접하여 성으로 들여와 신놀림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행복을 기원하는 오늘날 영등굿의 특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 IV. 절 오백 당 오백의 공존

절 오백 당 오백은 제주도 신앙 양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필자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절과 당의 공존이라는 측면을 주목하였다. 이는 불교와 민간신앙의 습합이라는 제주도 신앙 양상의 특징을 아주 잘 함축한 표현으로 생각한다.

영등굿에 불교적 요소가 남아있는 것은 고려의 연등회가 연등절 풍속이 되고 다시 영등굿으로 자리잡게 되면서도 남아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역사상 제주불교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연등회가 연등절 풍습으로 세시풍속이 되고 다시 영등굿으로 이어져 오면서 습합되어 남아있는 영등굿 속의 불교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등굿 서사 속에 등장하는 부처들의 모습에서 제주 사람들의 절 오백 당 오백에 관한 인식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1. 역사 속의 제주도 불교

제주도에 불교가 언제 유입되었는지에 관한 문헌 기록은 없다. 탐라는 불교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이후의 백제에 476년 방물을 바치고 있었고, 고구려·신라 등과 교류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당나라 등과도 교류하였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고 있었다면 삼국시대부터 제주도에서도 불교가 신앙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고려시대 제주불교는 개경의 팔관회에 참여하는 점, 법화사와 수정사·존자암이 비보사찰이었다는 기록과 고려시대의 유물 등으로 보아 고려불교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제주불교도 국가적 지원을 받아 가장 융성한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034년(정종 원년) ‘팔관회에 탐라국이 방물을 바치니 자리를 내주어 의례를 관람하게 하였고 이후로는 상례로 삼았다.’<sup>22)</sup>고 전하고 있다. 팔관회 때에는 ‘지방관이 파견한 자들의 봉표조하(奉表朝賀) 또는 외국인 조하의식’<sup>23)</sup> 등이 이루어졌는데 탐라는 이를 위하여 올라간 것이라고 보인다. 팔관회는 연등회와 더불어 고려의 국가의례였다. 최승로의 시무 제13조에 의하면 ‘봄에는 연등회를 하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한다고 하였다. 팔관회에 참석하는 탐라는 당연히 연등회도 실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수정사와 법화사·존자암은 비보사찰이었다. 지방의 비보사찰은 국가지원에 의해 보호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원 통제와 관리를 대신 맡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정사와 법화사는 원의 지배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각각 한라산 북쪽과 산남 지역의 사찰들을 관리하는 비보사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사는 원나라 시대의 대가람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어 고려 말에 그 사세가 가장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선 태종 때까지도 수정사는 노비 13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sup>24)</sup> 법화사는 조선 태종 때까지 280명의 노비를 거느린<sup>25)</sup>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 법화사는 1269년에서 1279년까지 중창사업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왕실에 사용되는 용

- 22) 『고려사』 권6, 정종 즉위년 11월 조.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134쪽에서 재인용.  
 23) 한기문, 「고려시기 정기 불교 의례의 성립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제27집, (영남대학교, 2003), 45쪽.  
 24)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주(濟州)의 법화(法華)·수정(修正) 두 절[寺]의 노비(奴婢)의 수를 아뢰어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정문(呈文)에 의거하면 주경(州境)에 비보 사찰(裨補寺刹)이 두 곳인데, 수정사(修正寺)에는 현재 노비 1백 30구가 있고, 법화사(法華寺)에는 현재 노비 2백 80구가 있으니, 비읍건대, 두 절의 노비를 다른 사사(寺社)의 예(例)에 의하여 각각 30구를 주고, 그 나머지 3백 82구는 전농(典農)에 붙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5권 8년 2월 정미).  
 25) 앞의 『태종실록』 15권 8년 2월 정미.

과 봉황문 막새 등의 기와와 청자 등도 출토되었다. 존자암은 16세기 초까지도 나라에서 경비를 지급 받아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성재를 지내던 사찰<sup>26)</sup>로 고려시기 비보사찰의 연장선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제주도의 고려시대 사찰로는 묘련사·서천암·보문사 등이 있으며 이 중 묘련사는 경판을 제작하였던 사찰이다. 1296년(충렬왕 22년)에 판각한 『금광명경문구(金光明經文句)』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고려시대 제주도의 불교는 육지부의 불교의 양상과 같은 흐름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겠다.

조선은 억불승유 정책으로 선교 양종으로 종파를 병합하고, 사찰의 경제적 기반을 축소시켜 나갔다. 태종의 불교탄압 정책은 제주도에서도 1408년 고려의 비보사찰인 법화사와 수정사의 노비를 줄임으로써 불교의 세력을 약화시켜 나갔다.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불교는 침체되어 갔고 불교신앙은 생활 속에 토착화되어 갔다.

1520년 제주에 유배 왔던 김정(金淨)은 「제주풍토록」에 “음사와 함께, 부처에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 때의 불교와 무격신앙과 습합된 산천 성황신앙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유교 제례로 정비되어 국가의 예제(禮祭)로 모셔졌다.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은 자연재해로 오는 어려움에 대해 유교제례 이외의 신앙 양상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제주도의 신앙양상은 조선 시대 김정의 표현과 같은 습합의

26) “이 존자암은 ... 비보소(裨補所)이자 세상에 이름 난지 오래이다. ... 나라에서 이 암자에 눈을 하사하여 벼를 심어 제(齋)를 지낼 경비로 삼고, 음력 4월 길일을 잡아 세 읍의 수령 중 한분을 뽑은 다음 목욕제계하여 이 암자에서 제사지내게 하고 이를 국성재(國聖齋)라 하였는데...” (홍유손, 「존자암 개구유인문」 『(국역)소충유고』(소충유고국역간행위원회, 1997). 59~60쪽), (홍유손의 『소충유고』는 1507년 제주도 유배시 기록).

양상으로 오늘에 이어져 왔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신앙 양상은 절이 오백, 당이 오백 개인 것으로 표현될 정도였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 ‘절에도 가고, 당에도 가는’ 제주 사람들의 신앙의 양상을 상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찰에서 행하는 ‘용왕기도’나 ‘안택 기도’의 양상 그리고 무속의 서사 중에 나오는 부처에 대한 표현 등에서 각자의 영역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서 그 일면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2. 영등굿 속의 불교적 요소

제주도 신앙의 특징은 한마디로 절 오백 당 오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주불교의 특징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적 통제 하에서 불교는 민간신앙과의 습합으로 생활화된 것이 큰 특징이었다. 반대로 영등굿에도 불교적 요소가 혼재하여 있다. 단편적으로나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27)</sup>

1) 한수리의 고깃배가 풍랑을 만나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나라로 불려가고 있었는데 어부들은 영등대왕이 가르쳐준 대로 “관음보살”을 불러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2) 영등굿 안의 「지장 본풀이」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사고무친한 지장아기씨가 기구한 운명을 딛고 삶을 헤쳐 나간다는 이야기로, 그녀는 절에 가서 정성스레 불공을 드려 그 공력으로 마지막에는 새의 몸으로 환생한다는 이야기이다. 불교에서 지장은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의미하는데, 지장보살은 육도(六道: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상계)의 여섯 가지 세상의 중생을 구원하는 대비보살(大悲菩薩)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된 모든 영혼을 구제하겠다는 서원

27)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을 참조하였다.



을 세운 보살이다.

3) 「연유담음」에서는 “우리 인간이 탄생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 빌었던 공덕으로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빌고, 칠성단에 가 명(命)을 이어 달라 빌고, 제석님 전에 가 복(福)을 내려달라고 빌어...”와 같이 부처님은 영등굿 중에서 신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부처님은 칠성님과도 같이 오고 옥황상제와도 같이 오고 용왕님과도 같이 등장한다. 불교에 대한 억압은 외형상으로 사찰의 쇠퇴를 가져왔으나 신앙 양상에 있어 불교적 특징의 소멸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불교에 대한 억압은 불교를 민간신앙 속으로 녹아들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오리정신청계」에서는 영등송별제를 하면서 여러 신들과 함께 동북신미륵과 서북신미륵에까지 영등송별대제를 고해 올린다. 동북신미륵은 만수사에 서북신미륵은 해륜사에 있던 미륵불로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5) 「칠머리당 본풀이」 중에는 「바랑탐」을 한다. “제석도 일월(日月; 조상신), 몸주도 일월, ... 두 집 정도 기른 피란장삼·염주·목탁, 목에는 염주, 손에 단주, 금바라 옥바라도 타러 가자.”는 서사와 함께 ‘바라춤’을 춘다. 무당은 승려의 가사를 걸친 복장을 하고, 양손에 바라를 들고 바라를 치며 제장을 돌며 ‘바라춤’을 춘다.

이외에도 영등굿에는 생불(生佛), 전륜대왕(轉輪大王), 지장(地藏) 등 불교의 보살 등이 신으로서 기원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제주도 영등굿에 보이는 이러한 불교적 요소와의 습합이야말로 제주도의 신앙 양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등대왕은 자신이 풍농과 풍어의 신이면서도 어부들에게 관음보살에의 기원을 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등신들을 잘 대접하여 돌려보내는 영등송별대제를 미륵불에게 고해 올리기도 한다. 또한 지장아기씨의 불공, 무당의 바라춤 등은 모두

불교와 민간신앙과의 습합의 증거들이다. 조선의 불교 억압은 외형상 사찰의 쇠퇴를 가져왔고 내용적으로는 불교의 신들이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습합되어 녹아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습합은 고려 연등회에 도교적 의례가 함께 설행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서 고려 시대 연등회에서부터 그 싹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의 연등회가 조선에 이르러 금지되자 외형적인 불교적 특징은 사라지고 그 상징성과 의미는 민간신앙 속에 함께 자리하여 영등굿의 양상 속에 존재한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주도의 신앙양상은 불교와 민간신앙이 오래전부터 불교에서부터 민간신앙으로 그리고 민간신앙에서 불교로 서로 영향을 주며 습합되어 왔기 때문에 절 오백 당 오백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굿 속에 등장하는 불교의 여러 신들, 불교 속에도 민간신앙의 요소를 도입시켜 신앙민들에게 의지처가 되는 경우 등은 전혀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감싸 안아 둘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 짓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친근함의 특징은 바로 고려시대의 연등회에서 시작한 연등절 풍습이 영등굿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로 녹아든 역사성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적 특징이 곧 제주 사람들이 절에도 가고 당에도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징이다.

## V. 결론

이 글은 조선시대 연등절에 관한 기록을 살펴 고려시대 연등회가 조선에 이르러는 연등절 풍습으로 그리고 오늘날 영등굿이라는 풍속으로 전래되고 있음을 살폈다.

고려 시대 내내 국가의례로 중요하게 시행하던 연등회는 고대로부터 있어온 정월 상원의 제천기농제(祭天祈農祭)의 성격에 불교적 특징인 연등을 접목한 축제였다. 제주도 영등굿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이어받아 풍농과 아울러 제주도의 생활상에 맞게 풍어를 통한 집안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연등하는 풍습 대신 연등회의 잔치 분위기가 풍농과 풍어를 기원한다는 성격을 지닌 채 연등절 풍속으로 변모하여 민간의 풍습으로 자리잡았다.

15세기 후반까지도 제주도의 연등절은 절에 향을 공양해 올릴 뿐 아니라 사찰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는 등으로 고려의 연등회와 유사한 풍속이었다. 16세기로 들어서면서 불교의 신들은 민간 신앙 속의 신들과 함께 공존하는 모습으로 변모되어 갔다. 이와 함께 연등절 풍속도 고려 연등회의 상징성만을 간직한 채 제주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끌어안은 풍속으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하였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유학자들의 눈에 독특하게 인식될 만큼의 제주만의 풍속이 되었다. 풍농을 기원하는 고려 연등회를 이은 제주 연등절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제주 사람들의 기원을 담아 바람신을 섬기어 풍어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으로 특징지어졌다. 18세기에 이르러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비를 마련하고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행복을 기원하는 오늘날 영등굿의 특징이 확고해 졌다.

조선시대 연등절 풍속이 고려시대의 연등회를 이어받기는 하였으나 점차 불교 행사의 의미는 사라져갔다. 그러나 문화의 생성과 소멸은 유래 없이 나타나거나 급격히 단절되는 현상이 드문 것인 만큼 영등굿 속에는 연등회에서 유래된 흔적이 나타난다. 연등회가 연등절 풍속으로 그리고 영등굿으로 변모하며 형태가 갖추어지면서, 연등회의 풍농 기원의 성격이 이어져 계승될 뿐 아니라 영등굿의 서사 속에는 생불, 전륜대왕, 지장 등 불교의 보살 들이 여러 신들과 함께 기

원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영등대왕과 관음보살, 지장아기씨의 불공, 미륵에게 고해 올리는 영등송별대제, 무당의 바라춤 등으로 영등굿 속에는 연등회에서 유래한 불교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

제주도 신앙 양상의 특징은 절 오백 당 오백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 절에도 가고 당에도 가는 제주 사람들의 신앙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바로 영등굿 속에 살아 있는 불교적 특징, 그리고 사찰에서 행해지는 민간신앙의 대상에 대한 기도에서 신앙 양상 간의 습합으로 인한 친밀의 정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역사적 흐름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주사람이라면 절에도 가고 당에도 가는 것이 생경스럽지 않은 것일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연등회를 영등굿이 계승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영등굿은 고려시대 연등회의 풍습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금지되면서 풍농과 풍어라는 기원의 성격은 그대로 간직하고 형태는 영등굿이라는 형태로 이어져 내려온 제주 사람의 생활 속에 살아있는 신앙 양상의 하나였다.



### [ 국문초록 ]

제주도에서는 음력 2월에 새봄을 맞는 세시풍속으로 한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이 행해진다. 고려 시대 연등회는 고대로부터 있어온 정월상원의 제천기능제(祭天祈農祭)의 성격에 불교적 특징인 연등을 접목한 축제였다. 제주도 영등굿은 바로 이러한 연등회의 특징을 이어받아 풍농과 아울러 제주도의 생활상에 맞게 풍어를 통한 집안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연등하는 풍습 대신 연등회의 잔치 분위기가 풍농과 풍어를 기원한다는 성격을 지닌 채 연등절 풍속으로 변모하여 민간의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 연등회가 연등절 풍속으로 그리고 영등굿으로 변모하며 형태가 갖추어지면서 점차 불교 행사의 의미는 사라져갔다. 그러나 연등회의 풍농 기원의 성격이 이어져 계승될 뿐 아니라 영등굿의 서사 속에는 생불, 전륜대왕, 지장 등 불교의 보살 들이 여러 신들과 함께 기원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영등대왕과 관음보살, 지장아기씨의 불공, 미륵에게 고해 올리는 영등송별대제, 무당의 바라춤 등으로 불교적 요소는 그대로 남아 영등굿의 기원이 연등회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 [ 주제어 ]

연등회, 연등절, 영등굿, 제천기능제, 풍농과 풍어의 기원, 영등대왕과 관음보살, 미륵에게 고해 올리는 영등송별대제, 국가의례, 세시풍속, 민간신앙

[ Abstract ]

**The origin of Jeju Youngdeunggoot<sup>28)</sup>**

Han Geum-soon

(The doctor's course of the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Jeju Univ.)

In Jeju, the Youngdeunggoot is performed in February by lunar calendar to pray for a good harvest as part of annual cyclic rite to welcome the new spring. The Yeondeunghoe(lotus lantern ritual) is a festival in the Koryo Dynasty, which was a mixture of Jaecheonginongjae(ritual to pray to God for good harvest)and Yeondeung. The former started from ancient times and was held on January 15th and the latter kept Buddhistic features. The Jeju Youngdeunggoot succeeded the features of Yeondeunghoe, and became the annual cyclic rite praying for prosperity of families and villages by praying for good harvest of crops and big catch of fish. In the Joseon Dynasty, the Yeondeunghoe took on the features of festivity praying for good harvest of crops and big catch of fish, changed into Yeondeungjeol(Lotus Lantern Festival) instead of Yeondeunghoe(Lotus Lantern Ritual), and was established as folk custom. As the Yeondeunghoe was turned into the Yeondeungjeol and then the Youngdeunggoot, the meaning of Buddhistic events disappeared. The Youngdeunggoot, however, succeeded the characteristics of praying for

---

28) Shamanic ritual for the big catch and safety of woman divers.

good harvest in Yeondeunghoe and Buddhistic features such as living Buddha, Jeonryondaewang(God of Wisdom), and Jijang(God of Underworld). It is clear that Youngdeunggoot is originated from Yeondenghoe through the Buddhistic features such as Youngdeungdaewang(God of Yeongdeung), Gwaneumbosal(Buddhist Goddesses of Mercy), the Buddhist service of Jijangagissi(Baby Buddhist Saint), Yeongdeungsongbyuldaejae(Ritual of Offering Confession to Maitreya), and the Buddhist Small Cymbals of a shaman.

[ Key words ]

Yeondeunghoe(lotus lantern ritual)

Yeondeungjeol(Lotus Lantern Festival)

Youngdeunggoot

Jaecheonginongjae(ritual to pray to God for good harvest)

praying for good harvest of crops and big catch of fish

Youngdeungdaewang(God of Yeongdeung) and

Gwaneumbosal(Buddhist Goddesses of Mercy)

Yeongdeungsongbyuldaejae(Ritual of Offering Confession to Maitreya)

the State Rites

annual cyclic rite

folk beliefs

## [ 참고문헌 ]

### 1. 문헌자료

- 김상현, 『남사록』(박용후 역, 제주도교육연구원, 1976).
- 이원진, 『탐라지』(김찬흡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이형상, 『남환박물』(김봉옥 편역, 『속 탐라록』,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1994).
- 이증, 『남사일록』(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1).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김천형, 『탐라사료문헌집』(도서출판 디딤돌, 2004).
- 홍석모, 『동국세시기』(이석호 역, 대양서적, 1982).
- 홍유손, 「존자암 개구유인문」 『(국역)소총유고』(소총유고국역간행위원회, 1997).
- 『고려사』, 『고려사절요』, 『삼국사기』, 『성종실록』, 『입당구법순례행기』, 『태조실록』, 『태종실록』, 『태종실록』

### 2. 연구 논저

#### 1) 저서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
-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연등 · 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2) 논문

- 이은봉, 「고려시대 불교와 토착신앙의 접촉관계 -연등회 팔관회의 종교의례 기능을 중심으로-」 『종교연구』6권, 한국종교학회, 1990.
- 한기문, 「고려시기 정기 불교 의례의 성립과 성격」, 『민족문화논총』제27집, 영남대학교, 2003.